지부교섭 속보

제07호 / ´14.6.20(금)

기본급 159,614원 인상!
통상임금 현실화!
임금체계 개악 저지!
자녀돌봄휴가 쟁취!

▣발행처:선전부 ▣발행인:조민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2차 제시안, 볼 필요도 없이 거부



3주만에 열린 교섭

지난달 29일 6차 교섭 이후에 3주 만에 7차 교섭이 열렸다. 6.4 지방선거와 12일 콜텍의 대법원 판결 참가로 인해 2주나 열리지 못한 교섭이 재개되면서 사측의 고민이 담긴 제시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도 했다. 노측은 지난 교섭 말미에 사측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고민을 많이 해서 의미있는 제시안을 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볼 가치도 없다

사측의 2차 제시안이 나왔지만 노측은 제시안 받자마자 교섭을 끝내자고 할 정도로 내용이 형편 없었다.

임금인상안은 '추후 제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관련법에 따라 각 사별로 정하자고 제시했다. 자녀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격리 치료기간 5일 이내에서 각 사별로 정하고 초과하는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22조 2(가족돌봄휴직)에 따라 조치하자고 제시했다.

올해 핵심요구안인 통상임금에 대해선 전혀 진전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사측 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고민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자녀돌봄휴가는 1~2주 정도의 기간 격리치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하기 위한 휴가인데, 사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하는 휴직이다. 요구안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시안을 보면서 노측 교섭위원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 관점 필요

조민제 지부장은 사측의 제시안을 보며 큰 실망감을 표현했다. 지금 사용자들도 단순히 통상임금으로 사측의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통상임금을 포함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들도 장기적이고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때다.

7차 교섭 속기록

회사별 논의하자는 건 말도 안되는 것

사 : 교섭이 각 회사별로 한차례 순회하여 7차 교섭을 하게 되었다. 3주만에 열린 교섭이다. 이 기간에 많은 고민을 했다. 조합 요구안이 다른 때보다 커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 조합이 고려해주시면 교섭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노사가 의견 차이가 있다. 지속적인 대화와 지혜를 모으면 금년 교섭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

노 : 고민을 해서 제시안을 마련했는지?

사 : 2주간 회사간 거리가 있어서 모이기 어려웠다. 모여야 논의가 될었을텐데. 오늘 일찍 모여서 의견 나눴다. 임금은 중앙교섭에서 다루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다. 매년 앓는 소리가 아니라, 회사 규모나 경영환경, 임금지급 방법이 다르다보니 동일하게 안을 내기 어렵다. 중앙교섭에서도 요청하는 것이 내려달라는 것이고 지부교섭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지회로 내려줘야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것이다. 요구안 자체가 지부교섭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숙제 내는 기분으로 1차 제시안을 내긴 했는데 이해해달라. 지혜롭게 풀어나갈 부분은 조합 측이 고민을 해달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달라. 마련한 안을 드릴테니 검토해달라.

노 : 제시안 주시고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해달라. 설명 듣고 정회하자.

사 : 임금인상 요구안은 통상임금과 맞물리는 사안이라 추후제시라고 했다. 임금지급(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지난 1차 제시안에서 더 고민을 못했다. 월급제, 연봉제도 다르고 단협 상에 통상임금도 달라서 통일이 어렵다. 자녀돌봄휴가는 처우나 기간은 각 사별로 정한다고 했지만 휴가기간 초과 때는 기존에 합의했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게 제시안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것 고려해달라. 부족한 건 더 논의해서 하겠다.

<사측 2차 제시안 전달>

노 : 정회 안해도 될 것 같다. 크게 진전된 바가 없다. 중앙교섭에서도 지역의 각 회사도 의견 모으기가 힘든데, 전국단위 사업장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도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는 건 고민을 안하고 있다는 것 같다. 어느 정도 기준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사측은 그동안 법의 판결을 따르고 노동부의 지침을 따르자고 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임금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노조의 요구가 크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부담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장하는 선에서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출도 심각하고 내수도 더할 바 없이 나빠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 사용자도 고민해야 한다. 각 사의 이윤이나 성장에만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하는 시기이다.
제시안이 진전된 것이 없다.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추가 제시 없으면 교섭 마무리하자.

사 :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저희 사측에는 무조건적인 이익을 취하는 기업은 없는 것 같다. 직원들의 고민을 등한시 하는 건 없다. 각 사별 환경이 다르다보니 실질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게 지회단위로 협의하고 그걸 모아서 지부교섭에서 안을 내는 것도 방법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한다. 각 사별로 상황이 달라 강제할 수 있는 건 없다. 이해해달라.